

## 시선

## 사설

## 코로나19가 가져온 교육 패러다임 전환

지난 3일 학교 측은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장기한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이하로 완화될 때까지다.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을 보이자 학생들의 등교를 사실상 무기한 미룬 것이다. 이로 인해 약 2주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뒤 대면 강의로 전환하겠다는 기준 학사일정 또한 변경됐다. 학생들은 4주째 모니터 너머로 교원과 마주하며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준비된 단계에서 시행된 전면 비대면 강의가 아니었던 만큼 불만의 목소리는 불가피 했다.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출석을 부르는데만 30분 이상 소요됐거나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 통제가 안됐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대면 강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적은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효과적인 강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실기·실습 등의 수업은 상황이 더 어려웠다. 일부 학생들은 실기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지 못해 교육의 질이 체감 상 더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을 표했다.

교원 역시 전면 비대면 강의 체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기존에 비대면 강의를 진행해본 소수의 교원은 제외하면 대부분은 온라인 강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 교원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지 않던 세대인 만큼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건 더욱 익숙하지 않아 난관으로 작용했다.

온라인 강의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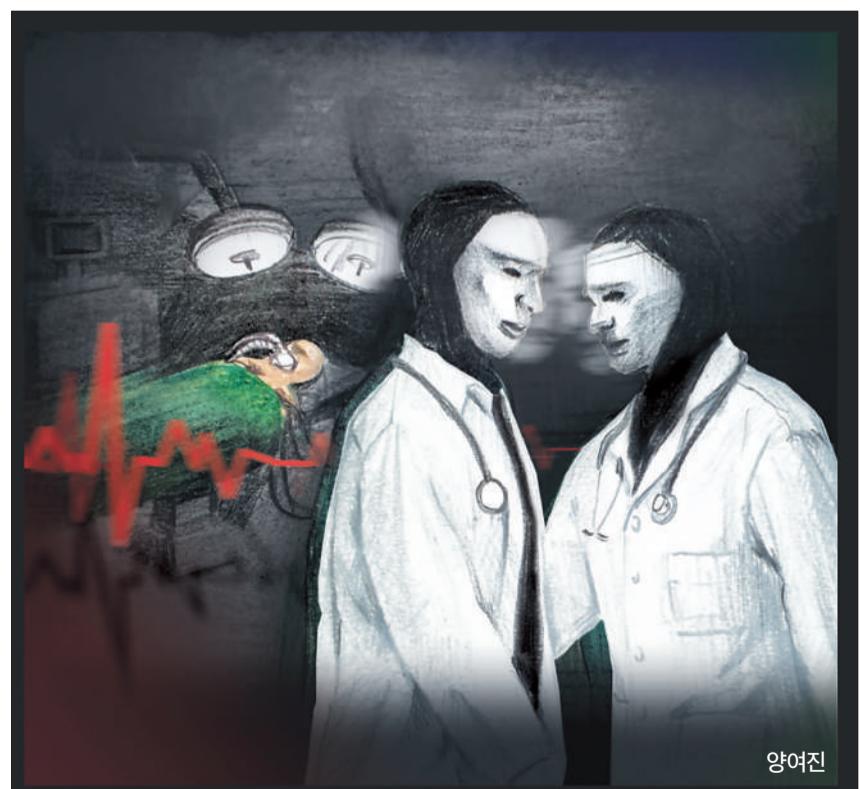
건 인터넷 및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예전 수순이었다. 다만, 그 순간이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리란 건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제기될 논의의 화두는 비교적 분명하다. 대면 강의에 비해 전달력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비대면 진행이 어려운 실기, 실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를 것인지 등이다. 또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기 위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풀어야 할 숙제다. 지금이라도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개선의 지표로 삼고 문제점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한다.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최근 몇 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새로운 감염병이 돌 때마다 주기는 짧아지고, 세계사회에 주는 충격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코로나19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팬데믹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한다.

코로나19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정지시켜 혼란에 빠지게 했다. 대학은 가장 먼저 시행착오를 겪으며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선두에 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남긴 증상을 회복하며 동시에 다음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면역을 갖춰야 할 시기다.

현재 주어진 상황을 테스트베드 삼아 온라인 강의 확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개선을 이어가자.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후 도래할 그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만평 - 성형의 그림자, 공장식 수술에 대책 필요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발행인 한규태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김지원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화기동) | Tel 02-361-0093-5 |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맹명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 세시봉

김수혁 (기획팀장)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2012년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다. 서로 독립된 이야기에 등장하던 슈퍼히어로들이 하나의 작품에 함께 등장한다는 오래된 만화책 속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스크린 위에 옮긴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5억 불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어벤져스를 재미있게 본 사람들은 대체로 간결 명료한 스토리, 개성 있는 캐릭터, 박진감 넘치는 액션, 실감 나는 컴퓨터 그래픽 등을 호평한다. 동시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오락성만 추구할 뿐 다시 볼 필요가 없는 '팝콘 무비'에 불과하다는 평도 많다.

하지만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고도 삼라만상의 이치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긴 영화라면 오죽겠는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니 마음만 먹으면 재미있는 오락 영화 한 편에서도 진지한 정치적 담론을 이끌어 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봤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들을 위해 주목하고 싶은 영화 속 장면 두 개를 소개하겠다. 장면 하나, 영화는 사악한 외계

인 로키의 지구침공을 중심 사건으로 다룬다. 로키는 지구에 온 목적을 문자 이렇게 답한다. "나는 너희를 자유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왔다." 로키는 인간이 실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타월한 통치자에 의해 지배받으며 자유로운 선택이 부여하는 책임에서 해방되는 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라 말한다. 장면 둘, 지구의 평화 수호를 목표로 하는 초국가적 정보기관 '쉴드'의 선량한 필 콜슨 요원은 로키의 손에 죽어가며 "네가 질 거야"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을 비웃는 로키를 향해 그는 "넌 믿음이 부족해"라고 덧붙인다.

고등학생 시절 이 영화를 처음 본 뒤 오랫동안 의문스럽게 남아 있던 콜슨 요원의 이 요상한 한마디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악당에 대한 반론으로 이해한 계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글이었다. 김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일기에 썼다는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짧은 문장이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짙곡을 온몸으로 겪었다. 인간의 저열함, 인간이 만든 세상의 추악함, 변화와 발전을 희구하는 열망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고 셀 수 없을 만큼 되뇌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고 결론 내렸다. 아마 그의 결론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믿음의 표현 아니었을까. 흔히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말한다. 사회가 마주한 문제 하나를 풀어내기 위해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선택하는 다양한 가능성들의 결과는 때로는 긍정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눈물 나도록 감동적이다.

하지만 우리가 밥 먹듯 마주하는 끔찍하고 한심하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은 우리에게 좌절을 준다. 끊임없이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할퀴고 쥐어뜯는다.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면 불신과 냉소, 체념과 패배주의가 그 자리를 빼차고 들어온다. 타협을 협잡으로, 미완을 실패로, 논쟁이 빚어내는 잡음을 무의한 소음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만일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는 날이 오면 인간이 할 일은 구원자를 향한 복종뿐이라는 로키의 장담은 사실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어쩌면 민주주의 정치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낙관주의가 아닐까. 정치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로 향하는 걸음걸음은 민주주의 정치를 지속시키는 일이며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인생과 발전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 이제는 보아야 할 때

## 최재수첩

김창호 기자

k.c\_hoxx@khu.ac.kr



너무 예뻐서 더 아픈 계절이다.

"기자님 혹시 '권대희 법'이라고 아십니까?" 다른 사안으로 연락을 주고 받던 취재원으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지난 2016년 안면윤과 수술을 받던 도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이 대학주보 기자와 만나길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들어도 학생 기자가 감당하기에는 큰 사건이라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일단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최선이었다.

그렇게 어머님과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을 때였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내가 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가득해 입이 바싹 말랐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취재에 대한 결심이 굳어졌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님의 사연이 안타까워서가 아니었다. 이런저런 걱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싶다"는 어머님의 진

심이 기사를 써야겠다는 확신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다.

곧 마련된 인터뷰는 유가족 분들의 집에서 진행됐다. 책상과 책장을 넘어 한쪽 벽면에 쌓인 소송 서류들, 발로 뛰며 정리한 녹취록이 가득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서 어머님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무렵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질문과 대답이 계속될수록 그 기분은 점차 선명해졌다. 불편함이었다. 취재의 기본인 질문과 대답이 이상하리 만치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아들에 대한 기억과 사건, 소송과 같은 아픈 기억을 되새겨야 힘을 모르지 않는 것이 그 이유였다. 취재의 전 과정이 유가족에게 상처를 더듬는 일임을 알았다. 내내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셨던 어머님은 "혹시 취재에 응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시나"는 질문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다. 어머님은 "처음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마음먹었을 때 각오한 일"이라면서도 "처음에는 '권대희 씨는 어떤 아들이었나', '어떤 심정이신가' 하는 인터뷰 레퍼토리가 벼거워 울지 않고는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픈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질문에 답할 때보다 그 노력이 무용지울이 되는 순간이 더 지치고 힘든 것 같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얹힌 일이라 이따금 보도가 무산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럴수록 사안이 공론화되어야 한다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의 핵심인 대중이 해당 사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워 다시 마음이 답답해졌다.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일종의 비극을 상상하고 피부로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000법'을 외치는 선두에는 대개 그 비극을 겪어본 이들이 서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비극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보아야 한다. 논의되는 000법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가 아닌 그 배경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대희 법 역시 마찬가지다. 덜어놓고 권대희 법 제정을 지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다만 "성형수술의 사각지대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배경을 알아야 함을, 보다 나은 사회와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논의의 장에 대중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이다.